



올해 이혼의 연세에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잘하시는 우리 어머니, 감사합니다.
 내가 힘이 될 때마다 미음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위안이 되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.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어머니의 일상

전국문화시진초대작가회
 회원 최경자